

자살테러에 대한 대책 연구

최 진 태(한국테러학연구소장)

A Study on the Measures against Suicide Terrorism

Choi, Jin-Tai

ABSTRACT

Over the past two decades suicide terrorism has become an ever-widening phenomenon. When suicide terroris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Middle East it seemed that this new phenomenon was invincible and that it might change the innate imbalance between terror groups and their rivalry governments. This did not in fact occur.

Looking at history of terrorism, it can be seen that suicide attacks are in actuality a very old modus operandi . However, contemporary suicide terrorism differs from such historical tactics, just as the whole phenomenon of terrorism differs from ancient modes of warfare.

Modern suicide terrorism is aimed at causing devastating physical damage, through which it inflicts profound fear and anxiety. Its goal is to produce a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 on an entire population rather than just the victims of the actual attack. The relatively high number of casualties guaranteed in

such attacks, which are usually carried out in crowded areas, ensures full media coverage. Thus, suicide terrorism, ranks with other spectacular modus operandi such as blowing up airplanes in mid air or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sure means to win maximum effect.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a suicide terror attack is defined as a politically motivated violent attack perpetrated by a self-aware individual (or individuals) who actively and purposely causes his own death through blowing himself up along with his chosen target. The perpetrator's ensured death is a precondition for the success of his mission.

The greatest potential risk suicide terrorism may pose in future is if terrorists carry out operations combined with other spectacular tactics such as blowing up airplanes or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 combination will increase immensely the death toll of a single terror attack and will have a shocking psychological effect on public moral. At this level suicide terrorism would constitute a genuine strategic threat and would probably be confronted as such.

This study portrays a general overview of the modern history of suicide terror activity worldwide, focusing on its main characteristics and the various aims and motivations of the terror groups involve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what is to be done to prevent such terrorist attacks.

[Key Word : Terrorism, Suicide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I. 서 론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자살 테러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자살 테러는 오랜 역사를 가진 테러 유형 중에 하나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살 테러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9.11 미국 테러 사건은 자살 테러의 종합 결정판이며,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보복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자살 테러는 전형적인 테러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자살 테러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앞으로 가장 위협적인 테러 수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자살 테러는 충동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공격 목표의 선정, 자살 테러범 선정 및 훈련, 자살 테러 방법, 자살 테러를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잔인한 테러 수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살 테러는 분리주의자 혹은 극단적인 종교주의자 그룹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다. 자살 테러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자살테러는 개인의 우발적 행동보다는 테러 조직의 연쇄적인 테러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자행된다. 둘째, 자살테러는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적 목적의 일부이다. 셋째, 대부분의 자살테러는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해 주로 자행된다. 넷째, 여성 자살테러리스트를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자살 테러는 비용 대비 피해 효과가 막대하여 다수의 희생자 발생이 뒤따르며,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어 테러조직의 정치적 선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능력을 가진 현대의 무기 체계와 목적 달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자살 행위가 결합되는 자살 테러는 전례가 없는 치명적인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이 성전(聖戰) 혹은 순교(殉教) 작전 수행을 선동 하고 있고, 이들 조직들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자살 테러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살 테러 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자살 테러 역시 합법적인 전쟁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많은 단체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 민족, 지역, 종교에 대항하는 자살 테러는 합법적인 전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살 테러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테러 전술과 항공기 납치, 차량 탈취 등이 결합된 자살 테러는 더욱더 치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횡수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 자살 테러의 기원과 발전 과정, 자살 테러의 현황 및 양상 분석 그리고 자살 테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자살 테러의 기원 및 발전

인류 최초의 자살 테러는 성경에 기록된 삼손이 구(舊) 팔레스타인 남부에 살던 민족이며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필리스타인(Philistine) 재판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진태a, 2006: 227) 그리고 세계 제 2차 대전 중 일본군이 연합국 전함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 동체와 함께 전함에 충돌하는 가미가제 식 공격도 자살 공격의 전례(前例)로 볼 수 있다. 일본군의 이러한 자살 공격은 연합군에 입힌 피해보다는 연합군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일본이 자국민을 전쟁에 무모하게 동원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연합군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게 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일어난 실질적 자살 테러 사건은 1983년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Hezbollah)에 자행되었다. 1983년 10월 23일 아침 이른 시간에 12,000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노란색 벤츠 트럭이 베이루트에 있는 미 해병대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여 사령부 건물 정면으로 돌진하여 자폭했다. 이 사건으로 241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그리고 같은 날 프랑스 군 주둔지에서 또 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58명이 사망했다. 헤즈볼라에 의한 두 건의 자살 테러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평화유지군이 철수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DOD, 1983: 141) 헤즈볼라의 자살 테러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점령군 철수라는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자살 폭탄 테러가 헤즈볼라가 가장 선호하는 전술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에는 헤즈볼라에 의해 선발된 젊은 레바논 여성이 차를 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탑승한 트럭에 충돌한 후 자폭하여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살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테러조직이 이용하는 전술이 되었다. 1993년 9월 13일의 오슬로 평화 협정 체결 이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Palestinian Islamic Jihad)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쇄적인 자살 테러 캠페인을 전개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집트의 테러조직인 Egyptian Islamic Jihad(EIJ), 터키의 Kurdistan Worker's Party(PKK) 등도 자살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 역시 대규모 자살 테러를 자행해온 조직으로, 대표적인 자살 테러 사건에는 미 해군 함정 콜호에 테러 사건,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테러 사건 등이 있다.(Schweitzer, 2000: 3-5)

그러나 자살 테러를 가장 효과적인 전술로 활용한 조직은 스리랑카의 타밀 타이거(LTTE)이다. LTTE는 검은 팬더(Black Panthers) 라는 자살 전담 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직은 남녀 자살 특공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고위 관료와 군인 등을 공격했다. 1987년부터 2000년 2월 사이에 LTTE는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168차례의 자살 테러를 감행하여 수천 명의 희생자를 발생하도록 했으며, 자살 테러를 통해 1991년에는 인도의 수상인 라지브 간디(Rajiv Gandhi)를 살해했고, 1993년에는 스리랑카의 대통령인 프렌데사(Prendesa)를 살해했다.(Schweitzer, 2000: 3)

이처럼 자살 테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자살 테러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국 자살 테러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9.11 테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살 테러의 발생 현황

1. 자살테러 일반현황

자살 테러에 대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월부터 04년까지 총 274건의 자살테러로 6,134명이 사망하고 19,52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25건의 자살 테러가 발생한 것이며, 연평균 558명이 사망하고, 1,775명이 부상을 당했다.(Falk, 2005)

〈표-1〉 자살테러 발생현황(94-04)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1994	5	80	398
1995	4	36	245
1996	10	144	1389
1997	3	20	350
1998	6	42	336
1999	11	28	210
2000	20	159	430
2001	36	3332	7977
2002	51	482	1579
2003	55	649	3181
2004	73	1162	3434
Total	274	6,134	19,529

자살 테러에 의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1년으로, 동년 9월 11일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에 대한 알카에다의 동시 다발 테러 공격 사건에서 기인하고 있다.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9.11 테러 사건으로 2742명이 사망하여 단일 테러 사건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당 평균 사망자 수는 24명이며, 부상자 수는 사건 당 78명으로 다른 모든 유형의 테러 사건과 비교해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자살 테러는 전체 테러 발생 건수의 3%에 불과하지만 9.11 미 테러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48%에 이른다.(Pape, 2003: 5) 자살 테러에 의한 희생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자살테러 공격 사건의 증가에서 우선적으로 기인하고 있지만, 자살 테러수법 역

시 치밀해지고, 자살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동시에 테러의 마약과 같은 중독성에서도 희생자 발생의 증가와 유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의 매일 발생하는 테러 사건으로 인해 극소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테러범들이 노리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공포 분위기 확산이다.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대형 테러 사건이 아니면 테러 사건 자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살 테러가 보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들이수록 자살 테러 희생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여 년간의 자살 테러 통계에서 자살 테러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테러전술이 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자살 테러의 지역별 현황

자살 테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이스라엘이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테러의 중심 화약고로서 알려진 지역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자살 테러는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가 거의 전부이다. 특히 94년부터 99년까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건수가 17건 인데 비해 대부분이 2000년 이후 발생했다. 가장 많은 테러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2002년으로 44건의 자살 테러가 발생했다.(최진태b, 2006: 126)

스리랑카는 3번째로 자주 자살테러의 피해를 입는 국가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자살테러가 주로 요인에 대한 암살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자살 테러사건으로 인해 외무부장관이 살해당하고 총리가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표-2〉 자살 테러의 지역별 현황

구분	발생건수	백분율
이스라엘	120	49
이라크	39	16
스리랑카	23	23
체첸/러시아	14	6
카시미르/인디아	5	2
기타	25	25

체첸 역시 자살 테러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보다 여성 자살 테러범이 많으며, 차량, 트럭을 이용한 거대한 폭탄공격으로 군사나 정치적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세련되고 대담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IV. 자살 테러의 양상 분석

1. 자살 테러 공격 목표

자살 테러범이 노리는 주된 공격 목표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쇼핑센터, 백화점, 대중 시장 등을 포함한 공공장소이다. 94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대중 시설에 대한 공격은 총 87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대중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 보다 피해가 더 큰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시설의 경우 보안 대책이 전무하여 침투가 용이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표-3〉 자살 테러의 공격 목표(1994-2004)

구분	발생건수	백분율
대중시설	87	34
군사시설	51	20
차량	42	17
식당/상점	15	6
정부/경찰 시설	58	23

자주 표적이 되는 또 다른 목표물은 대중교통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보안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 버스에 대한 테러범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은 존재한다. 하지만 버스에 대한 테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수 천, 수 만대의 버스에 대한 보안 대책 강구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주로 버스가 목표가 되는데, 버스 안은 제한적인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들이 승차하고 있고, 폭탄이 폭발할 때 폭압이 외부로 분산되지 않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군사시설에 대한 자살테러는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공격이었다. 군사 시설에 대한 테러는 상대적으로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서 무단 침투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3년 이후 군사 시설에 대한 자살 테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라크 전쟁과 미군에 대한 이라크 무장 저항 조직의 테러 전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 자살 테러 공격 유형

가장 자주 이용되는 자살 테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테러범이 직접 폭탄을 매고 자폭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차량에 폭탄을 싣고 돌진 하는 방법이다. 자살 테러의 3분의 2가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대중 통행로 상에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한 자폭 테러가 가장 빈발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스리랑카이며, 차량을 이용한 자살 공격은 체첸, 이라크,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테러는 정교한 하부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이유는 차량에 가득 실을 만한 양의 폭약이 필요하며, 경계망을 뚫고 공격 목표로 선정된 목표물에 차량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로, 검문 및 검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한 도로상에서의 자살 테러의 경우 공격에 사용된 폭발물의 종류, 테러범의 인적 사항, 테러범이 속한 테러 조직, 폭발물 원리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는 폭발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된 폭발물에 대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46%이다.

행인으로 위장한 자살 폭탄 테러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은 폭탄벨트이다. 폭탄벨트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코트든 셔츠든 어떤 옷차림이라도 폭탄을 은닉하기에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폭약을 테러범의 몸에 은닉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지만 의심받지 않고 테러 공격 장소로 은밀하게 침투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탄 조끼의 경우 차량 폭탄 테러에 비해 폭발력과 살상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탄 벨트나 조끼에 폭발물과 함께 볼트, 나사, 너트, 못, 쇠로된 볼베어링 등의 파편을 함께 몸에 은닉하여 살상능력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표-4〉 자살 테러 폭발물 유형

구분	발생건수	백분율
미확인 폭발물	46	46
폭탄 조끼	41	41
폭탄가방	11	11
슈류탄	2	2

자살폭탄에는 폭약을 작동시킬 전자기기와 테러리스트 스스로 자폭할 수 있도록 버튼이 필요하다. 다만 테러리스트가 마지막 순간에 망설여 작전을 그르칠 경우를 대비하여 감시자가 원거리에서도 폭발시킬 수 있는 원격조정 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에는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를 대비하고자할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 마차, 심지어는 말이나 당나귀를 이용한 자살폭탄테러가 실제 발생한 적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3. 자살 테러범 유형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테러범하면 통상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살 테러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테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 적군, 서독의 적군파 등 여성이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으며, 연쇄적인 항공기 납치에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 수술을 하고 또 다시 항공기 납치를 주도했던 레일라 카레드는 가장 악명 높은 여성 테러리스트였다. 1983년대 초 발생한 자살 테러사건을 자행한 테러범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회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믿음과 사회장벽 때문에 여성은 자살 테러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통상적으로 자살 테러를 자행하고 자폭하는 테러범은 남성이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자살 테러를 자행하고 자폭한 여성 테러범이 확인 가능한 정보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35명이나 되며, 테러에 실패하고 체포된 여성 자살 테러범 역시 최소 35명에 이르고 있다.

자살 테러를 전술로 이용하는 이슬람권 테러조직들은 아랍 사회의 전통상 여성이 자살 테러에 참가하는 현상은 금기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살 테러에 동원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보안 당국에 발견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안 당국에서는 여성이 테러범 특히 자살 테러에 동원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보안 검문이 느슨한 것이 일반적이다. 테러 조직은 이러한 보안상의 틈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자살 테러에 동원되는 테러범들의 연령대 분포를 분석해 보면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구분이 거의 없다. 그러나 10대와 20대가 자살 테러범으로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혼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나이 어린 자살 테러범은 16세의 소년이었다.¹⁾

1) 2004년 11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 위치한 노천시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해방민전선(PFLP)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살 테러범은 16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었다.

〈표-5〉 자살폭탄 테러범 연령

구분	합계
10대	32
20대	26
30대	2
40대	3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미래, 가족에 대한 염려 등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테러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보안군에 의해 친인척이 살해되거나 부상당하는 등 개인 혹은 가족의 희생에 대한 복수의도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살 테러에 동원되고 있다.(Crenshaw, 2001: 25)

4. 자살테러 자행 시간

자살 테러는 보통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늦은 밤에는 자살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자살 테러의 발생 시간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자살테러의 자행 시간대의 결정은 선정된 목표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중교통 수단이 자살 테러의 목표물로 선정되었을 경우 테러 자행 시간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다. 특정인 탑승한 버스에 대한 특정인의 암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한 밤중에 한두 명의 승객이 탑승한 대중 버스를 대상으로 자폭테러를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나이트클럽과 같은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자폭 테러를 아침 시간에 자행하는 바보 같은 테러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정된 공격 목표물에 대한 자살 테러를 통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힐 수 있는 시간대에 테러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식당에 대한 공격은 식사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사시설에 대한 자살 테러는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병사가 취침상태에 있으며, 경비들도 어느 정도 긴장을 풀고 있는 시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V. 자살 테러 전개과정

자살 테러는 공격 목표의 선정, 자살 테러범 선정 및 훈련, 자살 테러 방법, 자살 테러를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통해 행해지는 테러 수법이다. 자살 테러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9.11 테러는 계획에서 실행까지 무려 4년여가 걸렸다. 자살 테러는 통상적으로 자살 테러의 결정, 공격 목표 물색, 작전구상 및 준비, 자살 테러범 선발 및 훈련, 자살 테러범 배치, 자살 테러의 실행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최진태, 2005:514-519)

1. 자살 테러 결정 단계

자살 테러의 결정단계는 테러 조직의 지도부가 자살 테러의 필요성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이다. 최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철저한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때 국제정세, 자신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살 테러의 목적과 필요성, 공격 목표 선정, 자살 테러 수법, 자살 테러범 선발 기준, 자살 테러범에 대한 사후 보상 문제 등 자살 테러 전반에 거시적 틀을 결정한다.

2. 자살 테러 목표선정 단계

지도부의 자살 테러 단행 결정이 내려지면 자살 테러 목표 선정에 들어간다. 지도부에 의한 자살 테러 결정 단계에서는 특정 국가의 특정 도시에 있는 시설 등과 같은 목표라는 식의 결정이 내려지고, 구체적인 목표물은 중간 간부들이 결정한다.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물이 결정되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한다. 과거에는 테러의 공격 대상은 상징성이 높은 군사 시설, 외교 시설 등 강성 목표(Hard Target)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살 테러의 공격 목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쇼핑센터, 백화점, 재래시장, 대중교통 수단 등을 포함한 연성 목표(Soft Target)가 주를 이룬다. 94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대중 시설에 대한 공격은 총 87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대중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한 공포 분위기 확산이 용이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시설의 경우 보안 대책이 전무하여 침투가 용이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최근에 자살 테러의 중심에서 있는 이라크의 경우 자살 테러의 주된 목표는 상징성이 높은 군인 및 군사시설이다. 이들 목표는 이슬람 과격 테러 조직에게는 점령군을 상징하며, 점령군

에 대한 테러는 정당성하다는 것이다. 군사 시설에 대한 테러는 상대적으로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3년 이후 군사 시설에 대한 자살 테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라크 전쟁과 미군에 대한 이라크 무장 저항 조직의 테러 전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3. 자살 테러 작전 구상 및 준비 단계

다음으로는 작전 구상 및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살 테러 수법, 구체적인 자살 테러 실행 시간 등이 결정된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자살 테러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자살 폭탄 테러의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조끼는 두께가 두꺼워 외견상으로도 테러 용의자 적발이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겉옷 속에 착용해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얇게 제작된 최신형 조끼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브래지어 폭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004년 7월 7일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에서 테러 혐의를 받고 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테러범이 두 명의 여성 경관에 의해 몸 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손을 대면 폭발하도록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브래지어 폭탄을 터트려 자폭한 사건이 발생했다.(최진태, 2005: 515)

자살 테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테러범이 직접 폭탄을 메고 자폭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차량에 폭탄을 싣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 하는 방법이다. 자살 테러의 3분의 2가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테러는 정교한 하부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이유는 차량에 가득 실을 만한 양의 폭약이 필요하며, 경계망을 뚫고 공격 목표로 선정한 목표물에 차량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로, 검문 및 검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4. 자살 테러범 선발 및 훈련 단계

작전 구상과 준비가 끝나면 작전에 동원될 자살 테러범을 선발하고 훈련을 시킨다. 자살 테러범의 최종 선발은 지도부가 맡는다. 선발 기준은 지원자 능력이나 경력에 따른 선발이라기보다는 반미 및 반서방에 대한 증오심 정도, 테러에 대한 열정과 순교에 대한 각오, 이슬람원리주의에 대한 충실성, 종교적 신념 등이다. 지원자들은 모두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순교에 대한 각오를 확인받는다.

최종적으로 자살 테러 실행자가 선발되면 동원될 수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종교 및 이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자살 테러의 각오를 강화시킨다. 자살 테러의 수법은 고도의 기술

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자의 정신적 무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자살 테러는 이슬람의 '파트와'와 같은 종교적 의무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살 테러가 가장 숭고한 종교적 희생이며,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은 순교자(Martyr)이며, 순교자는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혈족 중 70명에게도 천국에 오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식의 세뇌(洗腦)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자살 테러범은 저학력의 소유자, 불운한 가정 출신자, 정신 이상자,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성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살 테러범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살 테러에 가담하는 자들의 정신 상태는 극히 정상적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테러를 자행한다.(Springzak, 2000: 66-73) 9.11 자살 테러의 행동 대장이었던 아타(Mohamed Atta)는 고학력자였고, 가정 구성원들이 변호사, 교수인 상류 가정 출신자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0월 3일,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자살 테러를 자행한 여성 테러범은 변호사였다. 자살 테러에 가담하는 자들의 정신 상태는 극히 정상적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테러를 자행한다. 그리고 자살 테러의 동기는 그들이 추구하는 대의(大義)에 대한 선진, 분노, 복수, 불의(不義)에 대한 항거 등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테러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테러범은 강인한 남성 전사(戰士)'라는 고정관념도 이미 깨진지 오래다. 특히 자살 테러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테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 적군, 서독의 적군파 등 여성이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으며, 연쇄적인 항공기 납치에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 수술을 하고 또 다시 항공기 납치를 주도했던 여성 테러범도 있었다. 자살 테러범은 남성이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자살 테러를 자행하고 자폭한 여성 테러범이 40여명에 이르며, 테러에 실패하고 체포된 여성 자살 테러범 역시 최소 35명에 이른다는 한 보고서는 자살 테러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Barr, 2002)

북오세티야 공립학교에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폭한 테러범과 그에 앞선 러시아 여객기 테러의 주범은 모두 여성이었다. 2002년 모스크바의 극장 관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테러범 41명 중 18명이 여성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체첸 출신 여성 테러범을 상복(喪服)의 검은색에 빗대 '검은 과부들(Black Widows)'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전쟁 중 남편이나 아들을 잃은 여성이 테러 조직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2002년 와파 이디리스(Wafa Idris)가 자살 테러를 감행하고 난 후 팔레스타인의 무장조직 알 아크사 여단내에 '와파 아드리스 그룹' 혹은 '선택된 부대(The Chosen Unit)로 알려진 여성 자살 테러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신문 아사르크 알 아우사트는 "알카에다가 미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아랍권 국가 여성으로 자살 공격 부대를 구성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2003년 4월 4일에는 이라크에서 연합군에 대한 두 명의 여성 테러범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2명의 민간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여성 자살 테러범이 코란과 무기를 들고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비디오테이프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성 테러범 2명 중에 한명은 임신 중이었다는 보도였다.

여성이 테러 전면에 나서는 것은 '여성은 약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국제 여론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한 남성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 검거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테러 조직이 노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표적 공격으로 살해된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도 초창기에는 여성 자살 테러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2004년 1남 1녀의 어머니인 림 리아시 자살 테러 후에 "남성 전사(戰士)들은 활동에 너무 많은 제약에 부딪힌다"면서 "성전(聖戰)은 무슬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의무"라는 입장을 통해 여성이 테러 자행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도 자살 테러에 나설 것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5. 자살 테러 감행 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살 테러범 배치와 자살 테러의 감행이다. 테러 조직은 작전 실행 하루전날 조직의 깃발 아래서 코란과 총을 들고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영상물을 제작한다. 제작된 영상물은 자살 테러 감행 후 공개하여 정치적 선전물로 활용하거나, 지원 세력의 결속력을 다지는 매개물로 그리고 조직원의 충원,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2002년 1월 27일 이스라엘의 쇼핑지구에서 자폭하여 9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하도록 한 한 여성 테러범 와파 이드리스(Wafa Idris)의 '영웅적 행동'을 칭송하는 포스터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거리에 내걸렸고, 이를 보고 자살 테러에 자원하는 여성 테러범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이드리스 자폭 후 2002년 전반기에만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여성 자살 테러 사건은 10여건에 달했다.

테러조직은 순교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의 조작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속 집단에게도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죽음은 정당성이 부여되곤 한다. 테러 조직은 구성원의 희생을 통해 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테러 조직은 순교자의 죽음을 찬양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순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자살 테러범을 순교자로 영웅화시킴으로서 순교자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자살 테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살 테러에 참가할 지원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자살 테러가 감행된 이후에는 자살 테러범의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주택 편의 제공, 직업 알선 등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2002년 예루살렘 버스 정류장에서 6명을 숨지게 한 여성

자살 테러범은 자살 테러 직전에 행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무가 완수되면 가족들에게는 그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보상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사전에 약속되고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진태, 2005: 518)

VI. 자살테러에 대한 대책

자살 테러는 너 죽고, 나 죽고, 모두 같이 죽자는 가장 극단적인 테러 유형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살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살 테러는 개인이 혼자서 자행하기는 어렵다. 자살 테러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인원과 지원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전문가, 지원 관계자 조직 등을 특정화시켜 관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 테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즉, 공격적 대응 방법과 방어적 대응 방법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공격적 방법은 자살 테러를 자행하는 테러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 테러조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테러조직이 자살테러범 충원을 차단하는 것 등이다.(Cronin, 2003: 19) 테러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은 테러 조직의 본부 및 훈련 캠프에 대한 군사적 공격,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표적 살해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테러 정책 노선에 따라 테러 조직에 대한 군사적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테러 조직의 지도자 및 간부에 대한 살해 혹은 체포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테러 조직의 간부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군사적 공격이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의 재건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에 의한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과 란티니에 대한 살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정보이다. 결정적인 정보의 수집은 자살 테러 자행을 위한 과정에서 자살테러범의 선발, 교육, 무기 구입, 공격목표 사전 답사 등 모든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다.

자살 테러에 참가하여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려는 자살 테러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살 테러는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 조직이 자살 테러에 참가할 지원자들을 물색하여 충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테러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도로 계산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자살 테러 빈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고, 정치적 협상을 위한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등의 국제적 노력을 통해 자살 테러의 정당성을 허물어야 한다.

방어적 대응 방법은 자살 테러범이 공격 목표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혹은 체포하는 것이다. 테러조직이 성공적으로 자살 테러를 자행할 수 없고, 자살 테러범의 죽음 이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운 상징적인 시설에 대한 엄격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살 테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공격 목표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유사시에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자살 테러에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테러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 등도 방어적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Cronin, 2003: 20)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현실에서 적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를 자신의 몸과 함께 폭발 시키는 자살 테러는 비록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동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을 더해가게만 하는 것으로 과연 그 끝이 어딘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은 자살 테러의 원인 제거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살 테러 행위를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최진태, 2005: 521)

VII. 결 론

자살 테러는 특정 인물이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에 동원되는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의 한 유형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테러 조직의 전술이다.

자살 테러는 공격 목표의 선정, 자살 테러범 선정 및 훈련, 자살 테러 방법, 자살 테러를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통해 행해지는 테러 수법이다.

자살 테러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테러전술이 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살 테러 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자살 테러 역시 합법적인 전쟁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많은 단체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 민족, 지역, 종교에 대항하는 자살 테러는 합법적인 전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자살 테러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자살 테러의 확산에 따라 한국 국민과 교민, 여행객, 상사원 등이 자살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가 파견되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 대한 자살 테러의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자살 테러에 대한 대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살 테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즉, 공격적 대응 방법과 방어적 대응 방법의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결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rr, Carmeron W.(2002), "Why a Palestinian Girl Now Wants to be a Suicide Bombe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 April 2002
- Beyler, Clara(2003), Chronology of Suicide Bombings Carried out by Women (ICT Paper), February 12, 2003
- , Messengers of Death: Female Suicide Bombers February(ICT Paper), February 12, 2003
- Crenshaw, Martha(2001), "Suicide Terror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apter 2 of the Countering Suicide Terrorism: An International Conference(Herzliya, Israel: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for Countering-Terrorism, 2001)
- Cronin, Audrey Kurth(2003), "Terrorists and Suicide Attack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8, 2003)
- DOD(1983), *Report of the DOD Commission on Beirut Airport Terrorist Act*, October 23, 1983, p. 141
- Falk, Ophir (et. al)(2005), *The Suicide Attack Phenomenon*, January, 2005
- Pape, Robert A(2003)..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3 (August 2003)
- Springzak, Ehud(2000), "Rational Fanatics,"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 2000
- Schweitzer, Yoram(2000), "Suicide Terrorism: Development &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for Counter-Terrorism*(21 April 2000)
- 최진태, "자살테러의 매커니즘" 「신동아」 (2005년 6월호)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최진태, "자살 테러에 대한 분석 및 대책" 「군사저널」 (2006년 2월호)

논문접수일 : 2006년 11월 1일
심사의뢰일 : 200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2월 6일